



**이재영 전북청장, 김제경찰 치안현장 방문**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이 12일 치안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김제경찰서를 찾았다. 이날 방문에서는 관내 치안 현황 보고와 함께 시민들에게 사립법률은 믿음직한 경찰이 되기 위한 김제경찰의 노력과 실질적인 행동이 담겨 있는 '은둔내한비위' 등의 추진 사항 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중요 법인 검거 및 치안 활동에 기여한 업무유공 직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끝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재영 청장은 참석 직원 전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경찰 행정의 시작은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경찰하는 자세에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적극적 모습에 주문했으며, "전문적인 법 집행 역량을 바탕으로 사법 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정교한 또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준 김제경찰서장은 "전북청장님의 방문을 계기로 현장 대응력을 더욱 높이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며 언제나 곁을 지키는 믿음직한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장파출소, 외국인 범죄예방 위한 간담회 진행**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 무장파출소(소장 노영모)에서는 관내 인력사무소 대표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음주·무면허 등 교통범죄, 절도, 폭력 등 외국인 범죄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영모 무장파출소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마다 증가 농촌지역의 구성원으로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지역주민들과 잘 어울려 살아가고 있으나 간혹 우리나라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 지역사회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강조하고, 인력사무소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모르고 저지르기 쉬운 범죄' 유형을 안내하고, 범죄에 대한 신고 요령 등에 대해 공유해 줄 것을 인력사무소 대표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동충동, 마음 있는 안부음료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는 동 우리마을돌봄단(동충동자치회)과 협력,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마음 있는 안부음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 및 주민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 동충동은 '1일 1가구 소통행진'을 통해 관내 고독사 고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가구 15가정을 선정해 월 2회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음료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 과정에서 건강 이상, 생활고 등 위기 징후 발견 시 동충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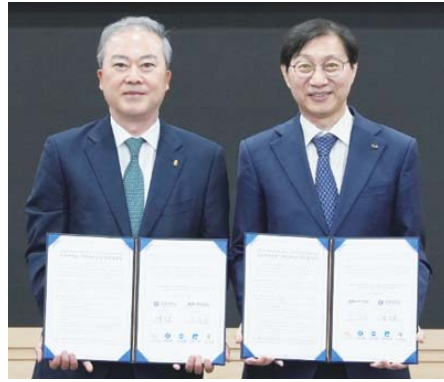
**임실 신덕면, 노부모 부양가정에 지역상품권 전달**

임실군 신덕면(면장 김진성)은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에 지역상품권 20만원을 전달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90세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가정에 6가구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고령의 부모를 정성껏 돌보며 함께 생활하는 가정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효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김모씨는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속 가능 금융 인재 양성 '맞손'**

**국민연금, 전북대와 협약 체결  
기금특별과정 8월까지 개설**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대학교가 기금금융 전문인력 양성과 전북 금융생태계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금융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금융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전북대학교에는 국민연금 기금특별과정이 올해 8월까지 개설된다. 해당 과정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신규 주입운용역과 전북지역 5개 금융기관(KB국민·신한·우리·하나·전북은행) 임직원 이 교육생으로 참여한다. 강사진은 기금운용본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실·팀장급 인력으로 구성돼 현장 중심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거점급대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금융 분야 공동 연구,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대학과 공단의 협력을 통해 미래 금융 인재 양성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대학과 공단의 협력을 통해 미래 금융 인재 양성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현대차그룹 투자 이후 첫 기자단 출범... 새만금 홍보 적극**

**새만금청, '새만금 스포일러' 발대식**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12일 새만금의 변화와 미래 비전을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할 제1기 정책기자단 '새만금 스포일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 정책기자단은 지난 2016년 1기를 시작으로 새만금 사업을 국민의 시각에서 재해석해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발대식은 새만금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책기자단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새만금 사업 소개와 콘텐트 제작 및 저작권 교육 등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이번 11기 정책기자단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 이후 처음 모집된 기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기자단은 앞으로 로봇, 인공지능(AI), 수소 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는 새만금의 모습을 다양한 콘텐트로 국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새만금 스포일러'는 새만금의 숨겨진 매력을 영화 예고



편처럼 미리 보여주고, 새만금의 미래를 국민이 먼저 '스포(미리 알기)'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책기자단은 새만금의 다양한 정책과 현장을 직접 취재해 영상과 기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트 등으로 제작·홍보하게 된다. 발대식 종료 후에는 새만금33센터 현장 방문도 이어져 2주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해 온 새만금의 과거와 현재를 직접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만호 기자



**전주교도소, 전주대 경찰학과 학생 대상 참관 행사**

전주교도소(소)는 12일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재학생 28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 치안 분야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에게 교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이날 교정시설 주요 운영 현황과 수용관리, 교정·교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며 교정행정의 실제 운영 과정을 체험했다. 전주대학교 권창국 교수는 "이번 참관을 통해 경찰학과 재학생들이 전공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교정기관이 사회 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참관에 참여한 한 학생은 "병소 드라마와 영화에서만 보던 교정기관의 실제 모습을 직접 보게 되어 매우 뜻깊었다"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교도소 주장민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신을 확대하고 다양한 참관 프로그램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춘향골농협, 왕진 버스 운영**

남원 춘향골농협(조합장 김영규)과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김중주)는 지난 5월 7일, 금지면 문화누리센터에서 고령농업인 및 취약 농업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 버스'를 운영했다. 왕진 버스는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실의 사업으로, 복지 접근성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의료지원, 검안·돌보기 지원 등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종합 복지사업이다. 이날 진행된 농촌 왕진버스는 영농활동으로 인해 지친 농업인들의 심신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진료, 운동처방 및 교육, 검안 및 돌보기 지원 등을 시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 우주항공청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전북특별자치도가 12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는 우주항공청 직원과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전북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답례품을 소개하고,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북의 성장비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 3월 현대로템과 무주군 일원 항공우주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우주항공 분야 핵심 기관인 우주항공청과의 접점을 활용해 우주항공 산업과 지역 상생의 가치를 함께 홍보했다. /이만호기자

**남원동부노인복지관, 편한마디의원과 축탁의 협약**

남원시가 직영 중인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은 12일, 복지관 물리치료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편한마디의원과의 축탁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물리치료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축탁의 자문 및 의료 연계를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편한마디의원은 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적 자문, 이용 어르신 건강상담, 물리치료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의견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동부노인복지관은 이번 축탁의 협약을 계기로 물리치료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 오는 18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6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동부노인복지관(063-620-5887)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차별없는 포용 도시로" ... 정읍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정읍시는 12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 시설과 단체, 시민 등 1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을 주제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시민법민 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지회장 송현)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준비했다. 장애 극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과 단체인 시민들이 함께 뜻을 모으는 자리를 만들었다. 식전 공연에서는 장애인 시설과 단체가 참여한 오카리나 연주와 노래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이어진 1부 기념식은 장애인 인권 향상, 장애극복상과 유공자 시상, 기념식과 축하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초경 가수 공연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마술 공연, 행운권 추첨 등 풍성한 진행 순서를 마련해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포용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복지 정책을 꾸준히 강화하겠다"며 '편의 보



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복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재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해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후배 위한 나눔... 정읍고, 개교 60주년 맞아 장학금 수여식**

정읍고등학교는 12일 교내 소강당에서 재학생과 학부모, (재)정읍고등학교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60주년 및 5월 가정의 달 기념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28명의 학생에게 2,02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특히 개교 60주년과 가정의 달을 기념해 임명의 기부자가 기탁한 600만 원은 각 학급 추천을 받은 학생 12명에게 50만 원씩 지급되며 의미를 더했다. 장학생들은 성실한 학교생활과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로 선정됐다. 장학금 수여식 이후에는 6~7교시에 걸쳐 졸업생 4명이 참여하는 '선배와의 대화' 진로 특강이 진행됐다. 이날 특강에는 국광현, 나경순, 김희호, 송승규 등문이 참여하여 16년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 경험과 직업 세계,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광현 (재)정읍고등학교장학회장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동문들의 따뜻한 후원으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뜻깊다"며 "선배와 후배가 직접 소통하며 진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더욱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김항운 교장은 "후배를 아끼는 동문들의 마음이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박용석(전 전북특별자치도 비서실장)씨 장인상= 별세: 12일, 빈소: 전주 삼성상례문화원 특 20호, 발인: 14일 오전 9시, 장자: 전주 승화원, 연락처: 063-247-1003  
\*마음 전할 곳: 신한 110029942693(예금주 박용석)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